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오직 타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어찌면 평생 궁금해하는 것은 타인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물건이 있다. 바로 거울이다.

글 편집실

외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욕망을 비추는

Mirror

거울





인류 최초의 거울은 잔잔한 물

매우 아름다웠지만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했던 청년이 있었다. 결국 그는 물에 비친 자신에게 반해 물에 뛰어들어 죽고 만다. 그 청년은 바로 그리스 신화 속 유명한 '나르키소스'다. 나르키소스처럼 인류 최초의 거울은 잔잔한 연못이었다. 잔잔한 물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면서 인류는 자아를 인식했을 것이다. 물 거울 이후, 흑요석으로 만든 거울을 사용했다. 1960년대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 고대 무덤에서 기원전 6000년경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흑요석 거울을 발견했다. 발견된 흑요석 거울은 얼굴이 비칠 수 있도록 잘 갈려져 있었다고 한다. 흑요석은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일종의 화산 유리다. 깨거나 가는 등 간단한 가공으로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거울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금속을 다루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부터다. 청동을 녹여 넓은 판을 만들고 표면에 광이 나도록 가공해 거울로 만들었다.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3000년경

부터 구리를 갈아 거울로 사용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청동 거울을 사용했다. 우리나라도 기원전 6세기경에 청동 거울을 제작했다. 청동 거울은 조선시대까지 사용됐다. 조선시대에는 거울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아에서 거울 제조 기술자를 두고 본격적으로 거울을 생산, 관리하기 시작했다.

고대 사람들에게 거울은 경이로운 도구였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반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거울에 대한 이런 인식은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mirror(거울)는 기적, 불가사의(miracle)라는 의미의 라틴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miratorium은 '거울'을 의미하고, miraculum은 '불가사의한 것' 즉, 자연의 힘을 초월한 것을 의미한다.

금속에서 유리로, 거울의 혁명

거울 역사에 혁명을 가져온 것은 유리 거울이었다. 하지만 판유리 기술이 부족했던 초기의 유리 거울은

휘어 있고 왜곡이 심했다.

본격적으로 지금과 유사한 평면 유리 거울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중세 시대부터다. 유럽 르네상스 시대 초기, 유리에 주석을 코팅하는 기술을 발명했다. 이 기술은 베니스에서 독점했는데, 프랑스 루이 14세가 이탈리아 기술자를 초청하면서 유리 거울 제작법이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됐다. 17세기 중엽, 거울 제작이 보편화되고, 프랑스 궁정의 지원에 힘입어 프랑스에서는 대형거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판유리가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되면서 거울은 중산층에까지 퍼졌다. 당시의 거울은 근대적 취향을 과시하는 신문물이자 예술품이었다. 사람들은 인테리어의 하나로 집안에 거울을 장식했다. 점차 거울이 집안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기인식과 자기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됐다.

이후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판유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값도 저렴해졌다. 알루미늄이나 은을 유리 뒷면에 입히는 방법은 1835년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발견했다. 이 기술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대량 생산에 적합해서 유리

거울의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현대에 들어서서 은, 니켈, 크롬 등을 코팅한 일반적인 유리 거울이 나타나게 됐다.

거울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

재미있는 것은 건국 관련 설화에도 거울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왕창근이 가지고 온 고경(古鏡)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용기를 얻어 고려 건국을 결심했다고 한다. 또한 조선 태조 이성계는 거울이 깨지는 꿈을 꿔는데, 길몽이라는 해석을 받고 자신감을 얻어 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북 포항시의 '보경사'는 신라 때 창건된 사찰로, 창건 당시 8면경을 내연산 아래 용당호에 묻었다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부터 거울을 신기(神器)나 통치자의 상징물로 여겼다는 것을 말해준다. 거울은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에도 등장한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은 춘향과 이별할 때 금낭 속의 명경을 꺼내주며, “대장부의 평생 마음 명경빛과 같은지라, 몇 해가 지나도록 변하지 아니할 것이니, 깊이 간직하고 내 생각이 날제마다 날 본 듯이 열어보라”고 말한다. 애정의 증표로 거울을 나눠 갖는





반면, 부부나 연인이 헤어질 경우 ‘거울이 깨졌다(破鏡)’고 말하는 관습도 있었다. 깨진 거울은 서양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서양에서는 거울을 깨면 7년간 재수가 없다고 한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조선시대는 왕이 새해에 동인승(뒷면에 신선이 새겨진 자루가 달린 둥근 거울)을 규장각 벼슬아치들에게 하사했다고 한다. 또한 백성들은 선달그믐날 조왕신이 일러주는 방향을 따라 거울을 가지고 나가 새해의 길흉을 점치기도 했다고 한다.

IT기술과 만나 똑똑해진 거울

거울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개항 이후였다. 1883년, 조선 정부는 미국인 조지프 로젠봄을 초빙해 판유리 제조회사를 설립했다. 뒤이어 몇몇 민간인도 유리공장을 차리기 위해 일본인 기술자를 초빙했고, 판유리 제조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은 일본으로 유학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누구에 의해 제조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유리 거울 제작이 보편화되면서 거울 제작 기술도

발전해 다양한 거울이 만들어졌다. 좌우 상이 반전되는 보통 거울과 달리 실제 남이 보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무반전 거울, 한쪽은 투명한 유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울로 보이는 매직미러 등이다. 최근에는 IT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이 접목되어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거울도 등장했다. 거울 앞에서 있으면 주름, 안색, 모공 등을 인식해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거울도 있다. 나이가 체중, 체질량 지수, 체지방, 수위 함량, 근육량, 골격 무게, 신진대사를 측정하기도 한다. 안면 동작 인식 기술이 적용된 거울은 사용자의 미소·윙크·눈 깜빡임 등의 표정을 인식해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한다. 세수나 양치를 하면서 거울로 날씨 및 메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집이 비어 있을 때 거울이 외부 침입자를 인식해 스마트폰에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이제 거울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다. 거리, 지하철,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몸이나 얼굴을 비추는 것을 넘어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유리 거울이 거울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된 것처럼, 거울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